

“GTX-D 파기 또는 무기연기 가닥”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 내용 (뉴스핌, 5.9) >

- ◆ “도로 ‘김부선’,尹대통령 공약 GTX-D 파기 또는 무기연기 가닥”
 - 경기도, 인천시 등 지자체가 요구했던 강남 직결은 무산
 - GTX-D는 예타 대상 제외, 공약 이행도 불투명

- 보도 내용인 GTX-D 노선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국토교통부는 현재 “GTX 확충 기획연구”를 통해 GTX-D 사업의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, 최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종료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*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 - * 장기역~부천종합운동장역 21.1km 신설,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하여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
 -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며,
 - 특히, 서부권 노선은 최근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출근 시간대 심각한 혼잡도를 완화하고,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조속히 선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광역급행철도추진단	책임자	단 장	이경석 (044-201-4166)
		담당자	서기관	황세은 (044-201-4161)
			사무관	권성근 (044-201-4162)